문화광장

눈으로 보는 티핑포인트

이 나 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쉼없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장마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데, 제주는 올해 이 계절을 건너뛰는가보다. 시원한 비를 궁금해한 대가는 때 이른 폭염이었다. 지구가 정말 뜨거워진걸까 궁금해하며 일상을 보내던 제주의 6월, 미술인들은 모두 유럽에서 모였다. 베니스비엔날레와 아트바젤, 카셀도큐멘타 등의 유럽기반 국제미술행사들이 순차적으로 오픈했기 때문이다. 베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늘 빙하가 녹아 수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 물의 도시는, 다행히 아직 건재하다. 섭씨 0℃에서 고체인 얼음이었다가, 1℃가 되면 액체가 되는 물의 성질은 새삼 신기하다. 0℃에서 단지 1℃만 올라가도 위험해지는 이 티핑포인트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작가도 있었으니, 바로 지금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가지고 있는 올라퍼 엘리아슨이다.

엘리아슨의 대표작은 테이트모던의 터빈홀에 거대 태양을 띄운 작품이다. 단순히 어떤 날씨나 기후를 미술관 안이나 밖에 환상적으로 재현해내는 건 엘리아슨에게 가뿐한 일이다. 여기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이 그의 이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베를린, 도쿄, 스톡홀름 등에서 진행한 '초록빛 강' 프로젝트는 환경에 무해한 형광 염료인 우라닌을 활용해 도심의 강을 형광 녹색 빛으로 물들인 작품이다. 매일 보던 일상의 풍경이 강의 빛깔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을 본 시민들은 놀라워했다. 매일 마주하던 자연의 존재를 상기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2015년에는 지질 학자와 함께 그린란드의 빙하 덩어리를 코펜하겐과 파리로 옮겨 전시한 '아이스 워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작품이 바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얼음에서 물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과정을 출퇴근길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2019년 UN기후 행동 정상회담 친선대사로 임명된 엘리아슨의 활동반경은 기업이든 공공미술 프로젝트든 미술관의 전시로든, 그 방식은 달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사점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계속 확장된다.

2019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제 기후 파업 주간이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 뿐"이라며 전세계 400만 명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9년 11월 5일에는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 여명이 '바이오사이언스'지에 지구가 기후 비상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왜 모든 예가 2019년인고 하니, 2020년과 2021년은 지구인 모두 팬데믹을 시간을 보내며 인간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었기 때문.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아지는 환경의 가장 큰 알람이 코로나 팬데믹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설

제주도 빚 급증,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최근 몇년새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 채무액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채무없는 특별도'까지 선언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마구 빚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기는 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p 낮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 2022년 3350억원 발생했다. 2018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 전 지사가 2017년 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서다. 원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과 4년새 1조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가 한해 수천억원의 빚을 서슴없이 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듯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오도정은 강도 높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폐기물 과다에 적정처리 '낙제', 인식 전환을

제주가 폐기물 과다 발생에도 적정처리엔 여전히 미흡하다. 도민사회가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면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폐기물 처리단계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각종 폐기물 문제는 발생량 줄이기와 적정 처리에 진전을 보여야 청정 제주를 일군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 곳곳이 폐기물처리로 갈등을 빚거나, 법규 미준수 사례들로 몸살을 앓는 현실서 폐기물 인식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수두룩한 위반사례는 대표적이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270곳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작년 한해 위반업체 33개소에 육박한다. 각종 법규가 환경 보호와 기업의 환경윤리 등을 강화했지만 사회현실선 여전히 폐기물 적정처리에 미온적인 것이다. 일부 마을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 시설 갈등도 문제다. 공용이든, 사기업이든 폐기물관련 시설은 부정여론 탓에 부지를 찾지 못해 수 년간 '부지하세월' 일쑤다.

제주는 개발보다 보전에 역점을 둔 정책 못지않게 각종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도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제주가 전국 최고 발생량을 보이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환경부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을 보면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제주가 하루 1인당 1.89kg을 기록,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도민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각종 폐기물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선순환'에 기여토록 도민사회 인식전환을 한층 새롭게 할 때다.

열린마당

의인 홍성직 원장의 영전에 부쳐

심 규 호 지구마을평화센터 이사장

임이 떠난 그날 한밤중 단비가 내려 한라산이 맑게 개었다. 허나 낮게 깔린 비구름은 우중충, 남은 이들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다.

처음 만난 것은 한 이십 년 되었을까? 모 방송사의 패널로 만난 자리였다.

이후 우리는 무심하게 지내다 바람결에 만나 이러저러한 화제로 웃고 떠들고, 음악도 듣고, 마츠모토에선 임의 색소폰 연주를 청하기도 하고, 사할린에서는 외과의가 뜬 연어회를 먹으며 즐거워했었다. 서로 어딘가의 장이 됐을 때 상호 교류협정을 맺기도 했었다. 물론 의사와 환자로 만난 적도 있었다. 낭종을 떼 낸 흔적이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 있다.

맞다. 임은 의인(醫人)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치료하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추구하는 의인이다. 임의 의원은 홍성직 외과이고, 생태 공동체 초록생명마을이며, 문화 공간 안단테 칸타빌레이다.

누구든 언제든 귀한 생명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섬세한 외과의의 손과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이상과 열정적 실천을 겸비해 언제, 어디든지 임이 필요한 곳이면 달려갔던 사람. 제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직접 가꾸고 제주와 제주외국인의 평화공동체를 추구했던 사람. 그리해 임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생명의 진리는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차마 떠나보낼 수 없음을 어찌 할까? 옛 만사(輓詞)의 한 구절을 빌어 애절한 마음을 전한다.

푸른 하늘이여! 참으로 믿을 수 없나니, 한낮의 푸르름이 여전한데 어찌 떠나시는가?

모두의 마음에 '모심'이 되리니 그 뜻이 영원무궁 만세에 전해지리라.

뉴스-in

"현안 해결 확고한 의지 보여달라"

오 지사, 희망 메시지 주문

○…오영훈 제주지사가 11일 공직자들에게 현안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 주문.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분석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

이어 "이번 주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도민 민심에 기반을 둔 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해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 고대로기자

"보수 인상을" 공무원 시위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보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이번 시위는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 개최에 맞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는데 공노총은 앞선 결의대회에서 기존에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이행 등을 요구.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직사회 고통 분담'을 '강력한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 제시. 진선희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그랜드 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大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권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